

“투기과열지구 풀어 지방경제 살려달라”

대한상의, 지방 부동산 경기진작책 정부에 건의

미분양 96% 지방에… 업체 출부도·경기 침체 심각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주택 미분양 해소 대책 등 특단의 부동산 경기 진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국무총리실과 재정 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제출한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지방 부동산 경기 진작

대책’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5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8만여 가구에 달하고 이 가운데 96%가 지방에 몰려 있어 지난해 지방의 일반건설업체 61개사가 부도를 냈던 데 이어 올해 들어 7월까지 부도업체가 36개사

에 이르는 등 건설경기의 부진은 지역경제 침체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견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에 걸쳐있는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분양이 심각하고 투기성 자본이 몰려 우려가 있는 지방의

경우 조속히 해제해 부동산경기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지방의 주택 미분양 해결을 위한 세제·금융지원도 절실히다면서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요건이 되는 기준주택의 처분기한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하고 미분양주택을 최소 분양받은 경우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감면하며 미분양주택 구입에 들어간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30%를 소득세 산정시 공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대출금리(연6.10~6.70%) 고

정) 및 대출한도(2천만원~3억원), 가격 제한(6억원 미만) 등 엄격하게 적용되는 장기 모기지론의 기준을 미분양주택에 한해 완화하는 것과 함께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의 억제를 위해 콜금리도 현수준에서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의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해 지방 부동산경기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면서 “지방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반가맹점도 카드수수료 내린다

이르면 내달 1%P 인하

영세가맹점 뿐 아니라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도 이르면 10월 안에 인하된다. 수수료가 2% 중반 이상인 중형 및 소형 가맹점이 대상이 되며 평균 수수료 인하폭은 1%포인트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서면서 영세가맹점 뿐 아니라 중형 및 소형의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도 낮출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작업은 현재 1.5~4.5%인 가맹점 수수료를 격차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런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영세가맹점(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 뿐 아니라 상당수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도 낮출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형 및 소형 가맹점은 간이과세자(연간매출액 4천800만원 이하)보다 매출이 많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치인 2% 중반을 넘어서는 곳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수수료가 3% 이상인 의류판매·세탁소·부동산중개업·미장원·자동차정비·학원·출판·홈쇼핑·인터넷상거래 등 업종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크다.

음식점·노래방·통신기기·통신서비스·편의점 등 업종은 현재 수수료율이 2.7%선이기 때문에 인하대상에서 빠져거나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형할인점·병원·항공사·철도·대학·골프장·주유소 등 업종은 이번 수수료 인하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다. 중형 및 소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폭은 영세가맹점보다 작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제24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제24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가운데 전국에서 모여든 워드프로세서 분야 참가자들이 실력을 겨루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총수 9%지분으로 40% 권리행사

소유지배구조 개선 안돼

경영지배권 행사 여전

재벌 총수들이 계열사들에 대해 직접 소유한 지분(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은 9.5%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40%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산과 현대자동차 등이 환상형 순환출자를 전부 또는 일부 해소해 상호 출자 제한을 피하기 위한 재벌들의 악성 적 출자행태는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일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가 있는 4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2일 공개했다.

자사주·우선주·상호주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4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총수의 소유지분율(이하 전자지분 포함)은 평균 9.52%, 총수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지분율은 40.80%로 파악됐다.

의결지분율에서 소유지분율을 뺀 소유지배괴리도는 31.28%로 작년에 비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낮은(높은)집단 현황 (2007. 4.1 기준 단위: %)

| 순위 |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집단 | | |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집단 | | |
|----|-----------------|-------|---------|-----------------|-------|---------|
| | 집단명 | 총수지분율 | 일기지분포함시 | 집단명 | 총수지분율 | 일기지분포함시 |
| 1 | 삼성 | 0.31 | 0.81 | 태평양 | 25.89 | 34.00 |
| 2 | SK | 0.82 | 1.50 | 농심 | 5.58 | 27.43 |
| 3 | 현대 | 1.40 | 2.24 | 한국타이어 | 10.84 | 26.90 |
| 4 | 오리온 | 1.12 | 2.42 | 부영 | 12.38 | 26.39 |
| 5 | 현화 | 1.86 | 2.54 | 효성 | 6.73 | 23.81 |

0.73%포인트 높아졌고 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의결승수율은 6.68배로 지난해에 비해 0.03배가 높아졌다. 이는 총수가 계열사나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갖고 있는 지분까지 합쳐 결국 직접 소유지분율의 6.68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11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 기업집단만 보면 재벌 총수의 소유지분율은 6.38%, 의결지분율은 37.74%로 소유지배괴리도가 지난해보다 0.08%포인트 높은 31.36%, 의결권승수는 작년보다 0.07배 증가한 7.54배를 나타냈다.

의결권승수가 가장 높은 곳은 동양(15.80)이었고 이어 SK(15.60배), STX(13.20배), 현화(10.87배), 두산(9.40배)이었다.

배), 삼성(8.10배), 코오롱(7.65배), LG(6.78배) 등 순이었으며 이에 비해 한국타이어, 교보생명, KCC, 효성 등은 1.5배를 넘지 않았다.

자사주나 우선주 등 의결권이 없는 지분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지분은 총수율은 4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4.90%로 작년에 비해 0.15%포인트 낮아진 반면 계열사 지분, 비영리법인, 임원 지분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51.57%로 작년에 비해 0.3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의결권승수가 많이 높아진 곳은 금호아시아나(1.97배 상승)와 코오롱(1.80배 상승)현대(1.69배 상승)였고 반대로 의결권승수가 많이 낮아진 곳은 동양(5.28배 감소)과 두산(2.22배 감소)이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북 대학생 숨은 아이디어 공모하세요

보해 내달 31일까지 신청접수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는 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광주, 전남·북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보해가 지역 대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상상력과 숨은 아이디어를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

올해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통합 마케팅 전략’과 ‘보해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의 PR전략’을 주제로 개최되며, 호남지역 2년제 이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희망자는 오는 10월31일까지 개인 또는 3인 이하로 팀을 구성해 보해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http://idea.bohiae.co.kr>)를 통해 참가신청서 및 주제관련 기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0개팀을 걸러내며 11월21일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최우수상 1팀과 우수상 2팀에게 각각 200만원, 1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일본 산업시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장려상 3팀과 입선 4팀에게는 각각 50만원과 20만원의 상금을 준다. 또 보해는 이번 공모전 수상자들을 다음 채용시 우대 할 예정이다.

한편 보해는 지난 1~3회 보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문의 (062)384-9300~2.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주택담보대출 한도 온라인 확인하세요

내달부터 은행 홈페이지 서비스

이르면 10월부터 시중은행의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대출 한도 산출 프로그램을 각은행 홈페이지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10월에, 여타 은행들은 준비가 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담보인정비율(LTV), 종부세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 따라 복잡해진 대출한도를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아파트 소재지, 담보대상 아파트 및 전용면적, 층수·선순위 설정금액, 대출금 등을 입력하게 된다.

또 DTI와 관련이 있는 대출금리와 타 금융기관 대출 협약, 소득 등도 기입한다.

/연합뉴스

증권사 보고서 정보 새나

추천 종목 발표전 미리 주가 올라

증권사들의 종목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미리 오르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보고서 사전 유출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증권사에선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며 일축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매수’ 보고서 발표 전 해당 증권사 창구로 대규모 매수 주문이 몰리는 경우까지 발생해 눈총을 사고 있다.

2일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FN가이드가 국내 증권사들의 종목 보고서와 해당 종목 주가의 상관 관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달 24일 현재까지 투자의견을 상향조정한 보고서와 신규 매수 추천 보고서는 104건과 94건이 각각 발표됐다.

이 중 투자의견 상향 종목은 보고서 발표 10일 전부터 발표일까지 주가가 평균 7.18%, 5일 전부터 발표 일까지는 5.05% 상승한 반면 발표일부터 5일 후까지 평균 주가 상승률은 0.38%, 10일까지는 1.9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규 매수 추천 종목의 경우에도 보고서 발표 10일과 5일 전부터 발표일까지 평균 주가 상승률이 각각 8.29%와 5.51%를 기록했으나, 5일 후와 10일 후는 0.32%와 -1.36%에 머물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호재성 재료로 인식되는 증권사의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보고서 내용이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합뉴스

삼성 이재용 전무 글로벌 행보

IFA 방문 “LG제품 참 잘 만들었다” 평가

이건희 삼성 회장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글로벌 행보가 모처럼 외부에 노출됐다. 이 전무는 1일 유럽 최대 전자전시회인 디遏制 베를린 IFA 현장을 찾아 경쟁사 제품 동향을 점검하고 삼성전자 부스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도시바 부스에 들러 LCD 모니터를 둘러본 뒤 파나소닉으로 자리를 옮겨 100Hz LCD TV를 관심있게 지켜봤다.

이 전무는 이어 윤종용 부회장을 비롯한 일원 20명과 함께 LG전자 부스로 이동, 김종은 LG전자 유럽사업의 안내를 받아 제품을 살펴봤다.

그는 LG 측에 카(car) 오디오 제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듣기도 하고, 휴대폰 뒤에는 LG 직원에게 “참 잘 만들었습니다”라는 ‘소감’을 전하면서 판매가격을 물기도 했다. 그는 “어떤 제품에 관심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카 오디오·비디오에 관심이 있다’면서 “우리 회사가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추석전후 수입 농산물 검역 강화